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9호 【루게 제25272호】 주제 105 (2016)년 5월 8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정은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의 오랜 력사에
서 더없이 준엄한 투쟁
의 시기였으며 위대한
전변이 이룩된 영광
스러운 승리의 년대였습
니다.

총결기간 조선로동
당은 류백없이 엄혹한
환경속에서 혁명발전
의 매 단계마다 주체적
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
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
에게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
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
놓았습니다.

력사상 그 어느 당
과 인민도 겪어보지
못한 간고하고도 험난
한 혁명의 길을 헤쳐
오는 과정에 우리 당
은 자기 사상과 위업
의 정당성과 불변성에
대하여 깊이 확신하게
되었으며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
의 각오와 의지는 더욱
굳세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인 투쟁으로 자랑찬 위훈을 새겨온
잇을수 없는 추억과 가슴 벅찬 승리자의 자부심을 안고
당 제7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민고 빠르던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에 잃는
청천벽력같은 민족의 대국
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서거
하신것은 우리 당과 인
민의 최대의 슬픔이고
상실이였으며 우리 혁명
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
이였습니다.

민족의 대국상후 우리
를 앞살라려는 제국
주의자들과 그 추종세
력들의 정치군사적압력
과 전쟁도발책동, 경제
적봉쇄는 극도에 이르
렀으며 여기에 후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서 형언할수 없는 시련
과 난관을 겪게 되었습
니다.

우리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의 운명은 위협
에 처하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력사에 류백
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
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
였습니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
에 대하여 우려하고 제
국주의반동들이 어리석
게도 우리의 《조선변
화》와 《제제봉괴》에

대하여 퍼들던 시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단호히 선언
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오로지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대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
에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하여 조선혁명의 백
승의 진로인 선군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선군
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군정치는 총대증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군사를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
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
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김정일동지식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입니다.

선군정치에는 혁명의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
도, 혁명의 승리도 있다는 선군혁명의 원리가 구현되
여있으며 혁명은 오직 자기 힘을 강화하고 자체의 힘
으로 하여야 한다는 자력자강의 정신과 우리 당의 드
림없는 반제자주적립장, 혁명적원칙이 집대성되어습
니다.

선군은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선군정치는
주체의 기치밑에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
명의 력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군정치방식이 창
조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과정에 다져
진 정치사상적, 군사적힘이 있었기에 선군의 위력이 높
이 발양되고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가 펼쳐질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위업에 충실한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지니고 선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끄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력사의 분수령으로
될것입니다.

1.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동지들!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수행으로 전
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적인 대정치풍파와 결집된 난관속
에서 우리 혁명을 주체의 한길로 향도해온 백승의 기
치였으며 선군정치는 우리 당과 인민이 준엄한 난국
을 뚫고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게 한 승리의 보검이
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당에
붙없이 충실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찬 승리가 이룩되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가 마련되었
습니다.

1)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투쟁

동지들!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제국주의를 비롯
한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속에서 전진하
는 혁명위업입니다.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은 전대미문의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

대로 개조변혁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
켜나가는데서 력사적리정표로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강령에 따라 전당과 전군을 주체사상화하며 사
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
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쳐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튼튼히 다지였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전략적으로선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
망목표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당 제6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성
과들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
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
로 되었습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완전승
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지난
세기말 세계적인 반사회주의, 반혁명적 역풍속에서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면이여 무너
지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졌으며 이를 기회로 제국
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는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
리 나라에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사상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사회주의를 앞살라기 위한 책

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조성된 준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제
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공세를 혁명적공세로 짓부
서버릴 단호한 의지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
고 전진시키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조직전개하였습
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과학과 반사회주의사상조류
의 역풍속에서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상이
고 정의이며 그 승리는 필연적이라는것을 과학리론
적으로 론증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드
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
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
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우
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변화된 국제적환경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요구로부터 정치사상전진을 핵방으로 강
화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본태를 고수하고 우리 식 사
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갔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 변함없이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
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
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갔습니다.

격변하는 정세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
망이 열리고있던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하늘처럼

당 중앙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갈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2일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2일회의가 5월 7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계속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보고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으며 대회참가자들은 부강다산한 세계정치의 돌풍속에서도 당의 령도 따라 추호의 흔들림없이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전진시켜온 전후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았으며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상과 전략,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백두산대국의 상상한 미래를 확신하였다.

대를 이어 걸출한 수령, 탁월한 정치가를 높이 모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해나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대회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차 넘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마치시자 대회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 업적으로 빛나는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 명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여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각 도당조직대표들인 김기남동지, 리명수동지, 조연준동지, 박봉주동지, 장철동지, 왕창욱동지, 김재룡동지, 오춘영동지, 김상민동지, 리영춘동지,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우리 당 강화발전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었다.

12면으로 계속



리수용동지, 김동일동지, 박승학동지, 김영철동지, 최용해동지, 장창하동지, 최용동지, 최학수동지, 박태성동지, 리영식동지, 최부일동지, 김수길동지, 진인철동지, 지룡규동지, 김길성동지, 리종무동지, 전경선동지, 강영철동지, 박정남동지, 고병현동지, 최동철동지, 김승두동지, 강명학동지, 박춘남동지, 김정판동지, 김두일동지, 리항철동지, 강하국동지, 차종범동지, 계훈녀동지가 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그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었으며 천재적인

